



2020년 사순절

주의 십자가가 사랑하리...

2월 26일(수) ~ 4월 11일(토)

가정예배 주간묵상집

- 넷째 주 -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2/26 재의 수요일	27 2일	28 3일	29 4일
3/1 사순절 1주	2 5일	3 6일	4 7일	5 8일	6 9일	7 10일
8 사순절 2주	9 11일	10 12일	11 13일	12 14일	13 15일	14 16일
15 사순절 3주	16 17일차	17 18일차	18 19일차	19 20일차	20 21일차	21 22일차
22 사순절 4주	23 23일	24 24일	25 25일	26 26일	27 27일	28 28일
29 사순절 5주	30 29일	31 30일	4/1 31일	2 32일	3 33일	4 34일
5 종려 주일	6 35일	7 36일	8 37일	9 38일	10 39일	11 40일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6~10)						
12 부활 주일	=> 총동원주일					

요일 2: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가난한 자가 되어라, 다시 어린이가 되어라, 네 자신을 너의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 등입니다. 이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선택에 있어 실패할 것입니다. 오늘은 유혹에 관한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우리들은 삶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유혹은 소유하고, 또 그 소유물에 집착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받은 영광, 일시적인 성공, 모든 형태의 권력에 집착하는 자아 의지에서 생겨납니다. 유혹을 받을 때 자아는 ‘자기의 소유’로서 집착하게 되는 어떤 것과 연결되는데, 그것은 육체의 건강과 아름다움, 돈, 성공, 이루어 놓은 업적, 완벽성 등입니다. 자기를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는 그는, 자기가 원하는 사물과 스스로를 동일시함으로써 그 사물 자체를 절대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대화된 사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척해 버립니다. 신앙까지도 말입니다.

이 유혹은 우리 모두를 걸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 우리의 덕행들, 우리의 업적들, 어떤 일에서든지 나의 권리를 찾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욕심은 우리가 속한 학교, 가정,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혹은 내 안에 선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극복해야 할 유혹은 자기의 권력과 부, 자랑 만이 아니라 영적인 힘과 부를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려는 그런 유혹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눅 6:20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참된 행복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징표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공로 때문에, 자신의 가진 것 때문에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돈이 없지만 와서 구원의 열매를 먹으라는 이사야의 초대가 이것을 증언합니다(이사야55장). 가난한 이들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들 안에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지도록 애써야 합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기 때문입니다(눅13:23-24).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자기가 남들보다 훌륭하다고 믿지 않는 사람만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간직하는 사람은 남의 불행에 눈을 감고 또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남보다 자기가 더 훌륭하다고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처신하면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눅16).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청빈(가난함)정신은 금욕적인 청빈, 철학자나 현자의 가난 정신이 아닙니다. 이 정신은 자기가 받은 선물들 그 자체에 대해 자유로운 마음을 갖는 태도이며, 또 이웃의 필요에 언제나 자기의 모든 것을 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런 마음의 소유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았으므로 자기의 것이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죄인인 제 마음을 가난한 이의 마음으로 바꾸어주소서. 그때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겠나이다.”

고전 13: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내가 전부를 가졌을 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핍은 나를 그리스도인도 아닌, 인간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바울은 사랑에는 하지 않아야 할 여덟 개의 행동방침이 있음을 말합니다. 사랑은 무엇보다 4-6절에 나오는 것과 행동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후에 다섯 가지의 해야 할 행동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8-13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에도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 지나고 어른이 되면 많은 것들이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져 버리는 것처럼, 사랑 이외의 모든 것들은 부분적이에요, 유치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어떤 은총의 선물보다 더 뛰어난 무한히 위대한 하나의 길’임에 틀림없습니다.

빌 2: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성공의 열매들이 아니라 인격의 성공입니다. 사도바울은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같은 사랑을 품고 살아야 한다고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입니다. 이 성공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완벽성과 우리를 비슷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여러분도 완전해야 합니다.”(마5:43-48)

이 성공의 관건이 되는 길은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이 자기 비하의 방식은 자신을 사랑으로 알리고 그 사랑을 퍼뜨리려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과 함께 노는 분이 아니라, 친히 인간이 되십니다. 그분은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시지 않고, 사랑을 실현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그분을 십자가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에 자기 자신을 굴종시키십니다. 그분에게 사랑은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시63:3).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자기 비하의 사랑의 행위를 닮아가며 살아갈 때, 우리들은 우리 앞에 주어지는 상황들을 옳게 판단하고, 우리의 입장을 옳게 결정할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여러분도 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태도입니다.”

눅 21:17-18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어려움과 박해가 닥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여 대처해 나가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을 묵상해 봅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혹자들이나 박해자들에 의해 압도당해서는 안됩니다. 어려움들은 사방에서 우리들에게 들이닥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 것이며, 친구들과 부모형제들까지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교양 없는 사람”(행 4:13)일지라도 자기가 한 대답의 힘에 놀라고, 또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당하는 기쁨”(행 5:41)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은 우리들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신뢰,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변치 않는 신실함, 이것이 없다면 우리들은 항상 불안한 가운데서 이리 저리로 흔들리며,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묵상해 봅시다. 나는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나의 모든 여건들과 내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무서워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봅시다.

눅 18:28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은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막14:29-31) 베드로는 자신 있게 이 말씀을 드렸으나 나중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의 각오가 아무리 위대해도 자신의 잘못을 덮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나의 선의에 찬 선택이 항상 하나님의 계획에 충실하다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마음 자세에 관하여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선택을 방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재산을 소유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재산에 의해 소유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를 슬프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데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이 재산은 수단에 불과한데 그것을 절대적인 무엇으로 삼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믿은 이들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그의 유일한 아들을 바쳐야 했을 때, 두려움이나 이해타산에서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바쳤습니다(히11:17-19).

이에 비해 베드로는 “저희는 제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버린 것이라곤 작은 집 한 채, 배 한 척, 그리고 그물. 이것들은 부자의 많은 재산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것과 소유하는 것에 서부터 떠나려는 마음의 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떠나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간묵상집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1. 가정예배

- ①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합니다.
- ②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
- ③ 묵상한 내용을 서로 나눔
- ④ 묵상 글을 함께 읽습니다.
- ⑤ 묵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심기도합니다.

2. 하가다

- ① 반드시 소리내어 합니다.
- ② 매일 반복합니다.
- ③ 집중해서 합니다.
- ④ 믿음으로 합니다.
- ⑤ 단순하게 합니다. (여러 구절보다는 한 구절을 3천 번 읊조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주의 하가다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11)

3. 중보기도

- ① 회개: 모세가 백성들의 죄악을 품고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먼저 우리 자신과 나라의 죄악을 품고 회개 기도합니다.
- ② 교회의 평강과 영적 회복,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③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합니다.
- ④ 확진자와 그 가족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온 나라가 지혜롭게 대처하여 코로나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옵소서.
- 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방역당국, 의료진,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할 있도록 힘을 더해 주옵소서.
- ⑥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가 무너지게 하시고, 거짓 복음에 메여있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 주옵소서.
- ⑦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깨어 일어나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소서.